

후코지 절

후코지는 오무타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이자 천태종 밀교의 일파입니다. 이곳은 사후 지카쿠 대사로 알려진 승려 엔닌(794~864)이 미이케 가문의 후원을 받아 820년에 건립했습니다. 시간이 흘러 이 사찰은 3개의 부속 사찰과 7개의 승방을 갖춘 대규모 사찰 단지로 발전했습니다. 이 사찰은 헤이안 시대(794~1185) 후반에 산사태로 파괴되었습니다. 그 후 사찰 건물 몇 개만이 재건되었습니다.

현재의 본당은 에도 시대(1603~1867)에 지어졌습니다. 이 사찰의 본존불은 질병을 고쳐주는 부처인 약사여래의 목조상(12세기 후반에 제작)과 이 사찰을 건립한 지카쿠 대사의 목조상(1429년에 교토에서 제작)입니다. 두 목조상 모두 후쿠오카현의 지정 문화재입니다. 사찰 경내에는 오른탑과 석불, 수호 신사, 묘비도 세워져 있습니다.

오늘날 이 사찰은 본당 진입로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곱홍매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. ‘누운 용 매화(가류바이)’라고 불리는 이 나무의 수령은 350년이 넘었고, 높이는 3m에 불과하지만 언덕 아래로 25m 넘게 뻗어 있습니다. 가지가 땅에 닿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어 원래 줄기에서 더 먼 곳으로 뻗어 나갑니다.

사찰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매화 나무가 있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매화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인기 명소입니다. 개화 기간 중에는 입장료가 부과됩니다.